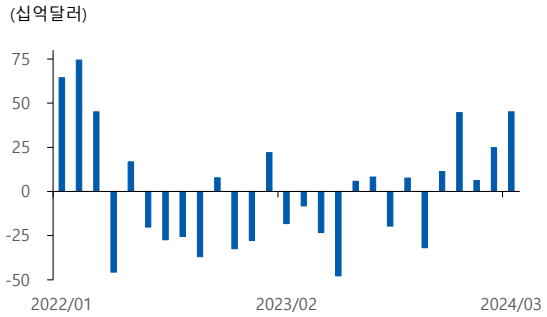
Fund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글로벌 위험자산의 투자심리 회복

1. 글로벌 주식펀드 투자 심리 회복

- 글로벌펀드 시장의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는 회복 중
- 글로벌 펀드 시장의 주식펀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3월에는 450억달러 순유입
- 글로벌펀드 시장의 채권펀드는 최근 3개월 자금 유입 규모 줄어들고 있음. MMF는 3월 자금 유출 전환

글로벌 펀드시장의 주식펀드 투자심리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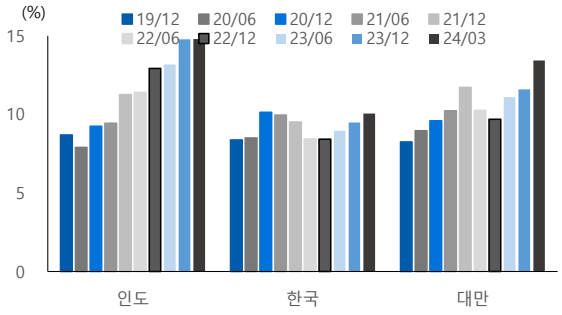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인도와 대만이 중국 대체 중

- 중국의 성장 정체와 미국과의 갈등으로 2020년 이후 신흥국 안에서 중국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듬. 2020년 29%였던 신흥국 펀드 안에서의 중국 비중은 2024년 1분기말 19.3%로 감소
- 1분기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 멕시코 비중은 증가
-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IT를 중심으로 한 테마펀드에서 자금 유출 지속

올해도 인도와 대만의 신흥국펀드 안에서의 비중은 확대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글로벌 주식펀드 투자 심리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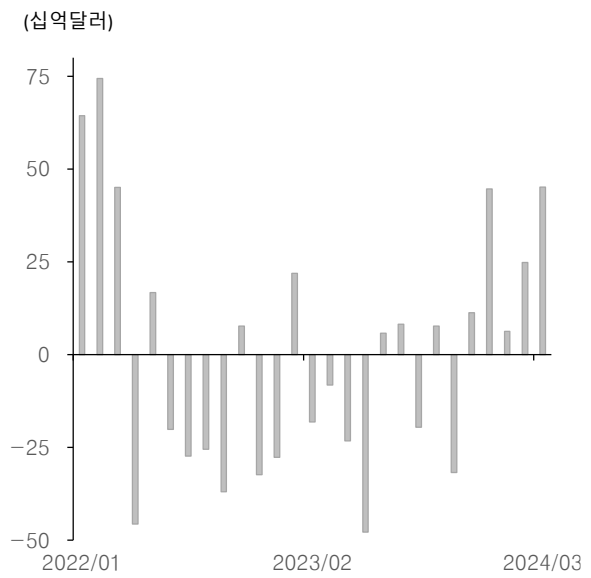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글로벌펀드 시장의 주식펀드와 채권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는 회복 중이다. 글로벌펀드시장의 채권펀드와 주식펀드 모두 5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펀드 시장의 주식펀드는 2022년 초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작년 3분까지 유출세가 이어졌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3월에는 45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글로벌 펀드시장의 채권펀드는 지난 2023년초부터 자금 유입이 재개되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자금 유입규모는 줄어들고 있었다. 2024년 채권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으나, 3달 동안 자금 유입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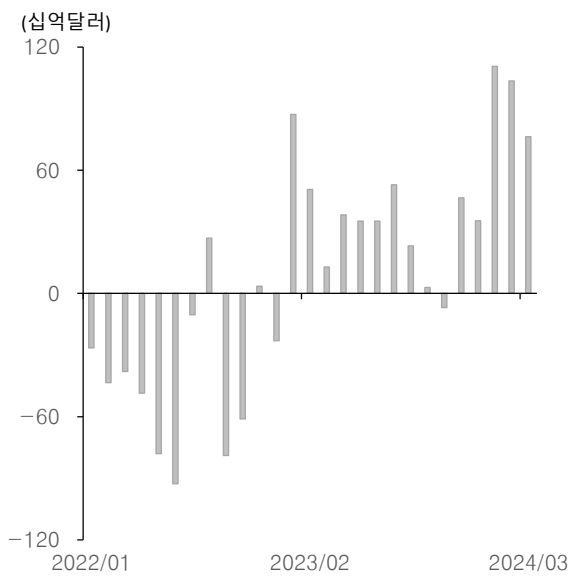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 시장의 MMF는 2022년 4분기부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2024년 2월까지 자금 유입이 이어지던 MMF는 3월 순유출 전환되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차트1] 글로벌펀드 시장의 주식펀드로 5개월째 자금 유입 이어짐.



자료: Mi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글로벌펀드 시장의 채권펀드로 5개월째 자금 유입되고 있으나, 자금 유입 규모 축소 .



자료: Mi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주식펀드 Out, 미국 주식펀드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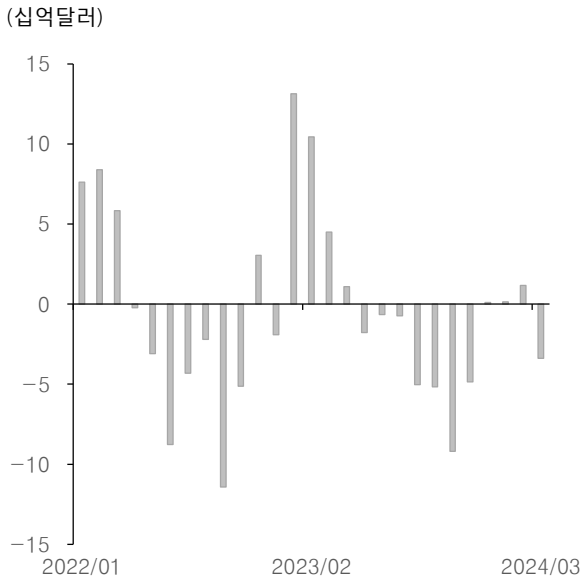
신흥국관련 주식펀드(신흥국주식펀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주식펀드)와 미국 주식펀드의 자금 흐름은 2022년 2분기 이후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기대수익률 높아서 선호가 되었던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 이후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미국 주식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다. 미국 주식펀드는 7개월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나,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는 작년 5월 이후 자금 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펀드시장에서도 3개월째 국내주식펀드보다 미국 중심으로 해외주식펀드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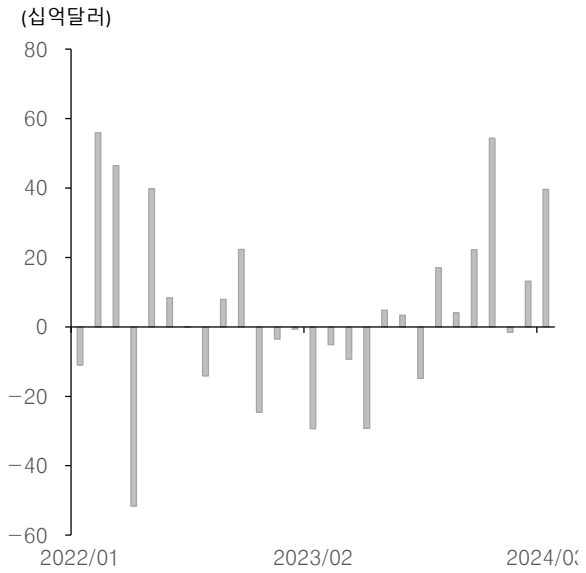
유럽 주식펀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침체 우려로 2021년 9월부터 투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주식펀드는 2023년 5월부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차트3]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는 작년부터 자금 유출.



자료: 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미국 주식펀드는 작년 9월부터 자금 유입 재개



자료: 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100004

3. 인도와 대만이 중국 대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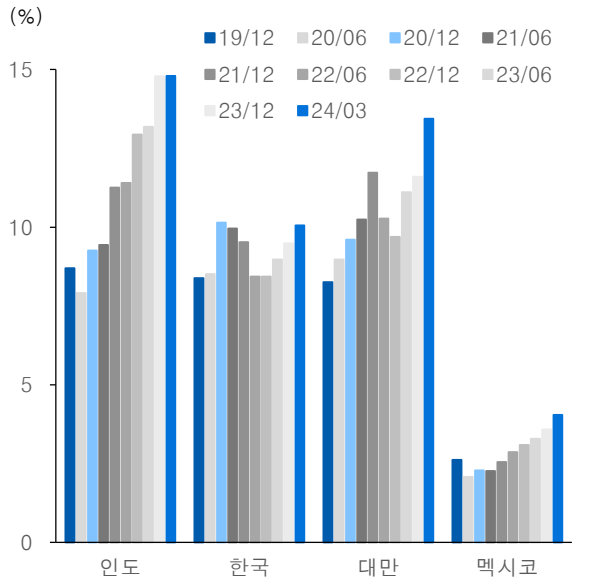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는 중국의 거침없는 독주가 계속되었다. 2014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13%(펀드 단순평균)였던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9%, 2020년 29%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정체와 미국과의 갈등으로 2020년 이후 신흥국 안에서 중국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3년말 20.3%였던 신흥국 펀드 안에서의 중국 비중은 2024년 1분기말 19.3%로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중국의 자리는 인도와 대만이 대신하고 있다. 1분기에 대만의 신흥국 안에서의 비중은 1% 이상 늘어났다. 2023년부터 신흥국 주식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 산업 선호 현상으로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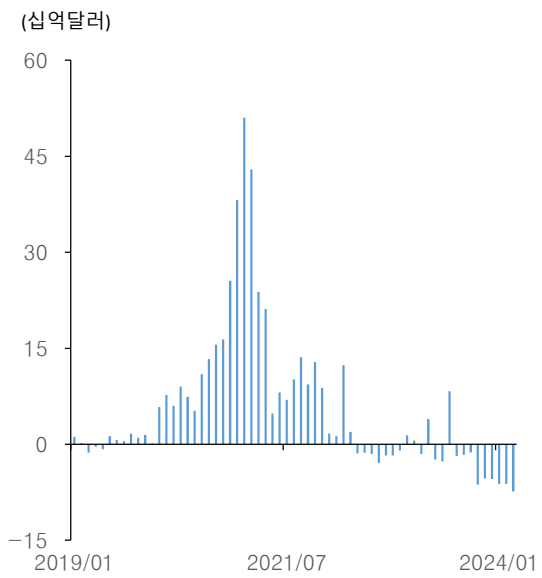
테마펀드의 인기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글로벌 펀드시장에서는 테마펀드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 테마펀드의 대표격인 ARK의 성과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차트5] 올해도 인도와 대만의 신흥국펀드 안에서의 비중은 확대 중.



자료: 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글로벌 테마펀드는 9개월째 자금 유출



자료: Morningstar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